

# 미디어의 역사 재현, 사회문화적 맥락과 이데올로기\*

– TV 드라마 <비밀의 문>과 영화 <사도>의

기호학 및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추다경\*\* · 백선기\*\*\*

## 【 차 례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V. 결론 및 함의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미디어를 통한 역사 재현에서 나타나는 현대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이데올로기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2010년대에 ‘사도세자’라는 역사적 소재를 드라마와 영화로 각각 재현한 드라마 <비밀의 문>과 영화 <사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방법은 서사구조, 계열체 분석, 행위주 분석과 담론 분석을 적용했고, 각각의 작품이 표출하고 있는 심층 의미와 이데올로기를 파악했다. 분석 결과, 드라마 <비밀의 문>은 사회 개혁, 전복, 저항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심층적으로는 영웅주의, 유교적 민본주의, 충효 사상 등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재하며, 가족 유대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반면 영화 <사도>는 사회에 대한 저항과 순응 이데올로기가 공존하고, 심층적으로는 유교적 숭문주의, 가부장주의, 서열주의 등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 본 연구는 백선기교수의 <미디어와 역사재현>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추다경의 석사 논문으로 활용된 바 있음.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uchoni89@gmail.com)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교신저자 (baek99@skku.edu)

대한 강력한 저항 이데올로기가 내재하며, 가족 유대 이데올로기를 파기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두 작품 모두 ‘사도세자’라는 역사적 소재를 채택하며 표면적으로는 저항적 의미를 표출하고 있으나, 심층적으로는 다소 상이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역사재현이 단순히 역사적 사실 자체를 원형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재현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여 재구성되며, 특정한 이데올로기들을 내포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열쇠어 : 역사 재현, 드라마, 영화, 사도세자, 이데올로기

## I. 서론

한국 대중문화에서 역사라는 소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화제성과 흥행성을 담보하는 일종의 ‘흥행보증수표’로 통한다. TV 드라마, 영화와 같은 영상 매체는 물론 연극, 뮤지컬, 소설, 웹툰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역사적 사건에 대한 끊임없는 재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역사라는 소재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호응이 뒷받침된 결과이다. 특히 TV 드라마, 영화와 같은 영상 매체는 그 중에서도 대중에게 가장 파급력 있는 매체이며, 역사 재현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TV 드라마의 경우 역사극은 각 방송사에서 ‘사극 명가’를 표방하며 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는 콘텐츠로서, <정도전>(2014)과 같은 정통 사극부터 <구르미 그린 달빛>(2016)과 같은 팩션 사극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사극 영화의 경우 역시 역대 흥행 기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량>(2014)을 비롯하여 <사도>(2015), <관상>(2013)과 같이 조선시대를 다룬 작품부터 <밀정>(2016), <암살>(2015)처럼 근대사를 다룬 작품까지 다양하다.

역사극은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을 소재로 삼는 것으로, 대중은 이미 해당 서사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같은 역사적 사건이 수없이 반복되어 재현되기도 한다. 이렇듯 더 이상 새로운 이야

기일 수 없는 역사 콘텐츠가 극 장르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역사적 사건이 그 자체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다양한 특성들을 반영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당시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이데올로기를 내포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2014년과 2015년 TV 드라마 <비밀의 문>과 영화 <사도>가 동일한 인물과 서사를 소재로 채택하고 재현하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죽은 역사적 사건’인 ‘임오화변’이 2010년대에 드라마와 영화에서 재현의 주요 소재로 재등장한 것에 주목하였다. ‘사도세자’라는 인물은 일면 대중에게 익숙한 역사적 소재로 인식되지만, 실상은 90년대 이후 역사극의 주요 소재로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그동안 드라마 및 영화에서 사도세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임오화변이 서사의 중심이 된 작품은 영화 <사도세자>(1956)와 드라마 <대왕의 길>(1998)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가 대중에게 익숙하게 인식된 것은 1990~2000년대의 인기 소재인 ‘정조’의 이야기에서 사도세자의 죽음이 주변적 소재로 이용되거나 언급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sup>1)</sup>

임오화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아버지와 아들의 비극적 부자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비롯하여, 왕과 왕세자의 권력 갈등,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암투 등의 소재로 다루어졌다. 따라서 같은 소재를 재현한다 하더라도 해당 소재에 대한 상이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으며, 표출하고자 하는 의미 역시 달라진다. 본 연구는 해당 소재가 2010년대의 TV 드라마와 영화에서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되었는지 분석하고, 여기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와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

1) 대표적으로 드라마 <이산>(2007)을 들 수 있으며, 영화 <영원한 제국>, <역린>,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과 같은 작품에서는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한 음모를 소재로 다루었다.

## Ⅱ. 이론적 논의

### 1. 미디어와 역사 재현

#### 1) 역사 재현에 대한 논의

근대 역사학에서 강조되었던 ‘객관성’, ‘현실성’, ‘진실성’에 따라, 한 동안 역사의 재현은 철저히 사실에 기초하여 과거를 재현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sup>2)</sup> 그러나 해밀턴(Hamilton, 1998)은 이러한 역사에 대한 근대의 실증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반근대적이고 반계몽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역사주의적 시각을 제시한다. 역사주의는 역사적 텍스트의 해석에 있어 한 가지의 고정된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 주목하여 역사를 상대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3)</sup> 역사는 불변하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인간에 의해 선택되고 정당성을 부여받은 해석의 결정체라는 것이다.

역사란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의 개별적 ‘이야기’의 집합으로서, 역사를 전달하는 데 있어 필연적으로 ‘서사’의 형태를 빌리게 되며, 수사적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sup>4)</sup> 이 과정에서 서사는 중립적 담론으로 존재할 수 없고, 서사의 형태나 수사적 표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시각과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로젠스톤(Rosenstone, 1988) 역시 역사가 그것이 발생되었을 때 그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역사가 문자 언어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역사가들에 의한 역사 재현 역시 언어에 의한 구성물이며, 이러한 특성은 영상 매체를 통

---

2) R. Braun, “The Holocaust and Problems of Historical Representation”, *History and Theory* 33:2, 1994, p. 172.

3) P. Hamilton, *Historicism*, 1998. 임옥희 역, 『역사주의』, 동문선, 1998, 27쪽.

4) H. White, *The Content of the Form: Narrative Discourse and Historical Representati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7, p. 57.

한 역사 재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sup>5)</sup> 다만 문자와 영상은 그 표현 방식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하므로, 역사 재현의 방식과 관점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발현될 수 있다.<sup>6)</sup> 화이트(White, 1988)는 ‘영상 역사물(Historiophoty)’과 ‘기록 역사물(Historiography)’을 구분하여, 영상 역사물이 기록 역사물의 보조수단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재현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7)</sup>

특히 서사성이 강조되는 역사극을 통한 역사 재현 과정에서, 작가는 자신의 역사관을 바탕으로 사료를 재해석한다.<sup>8)</sup> 또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역사학은 역사의 과학성보다 문학성에 주목하여 역사를 하나의 문화적 텍스트로서 인식하며, 역사극은 그것이 만들어진 당대의 정치사회적 맥락을 내포하게 된다.<sup>9)</sup> 이호걸(2003)은 역사 담론의 개념을 제시하며 학문적 역사 서술과 역사에 대한 문화적 재현물이 함께 역사 담론을 구성한다고 한다. 1950년대 이후 한국 사극 내에 과거를 소환하는 맥락이 있음을 밝히고, 이같이 과거를 소환함으로써 당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sup>10)</sup>

## 2) 영상 매체를 통한 역사 재현과 이데올로기

드라마, 영화와 같은 영상 매체에서 나타나는 역사 재현은 일반적으로 사실성과 허구성을 동시에 지닌다. 영상 매체를 통한 역사 재현은 대중

- 
- 5) R. Rosenstone, “History in Images/History in Words: Reflections on the Possibility of Really Putting History onto Film”,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93:5, 1988, p. 1181.
- 6) R. Rosenstone, *ibid.*, pp. 1184~1185.
- 7) White, H., “Historiography and Historiophot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93:5, 1988, pp. 1193~1194.
- 8) 양승국, 「역사극의 가능성과 존재 형식에 대한 소고: 역사를 무대 위에 소환·재현하는 방식을 통하여」, 『한국극예술연구』 25, 한국극예술학회, 2007, 426~427쪽.
- 9) 양근애, 『한국 역사극의 형성과 재현의 문화정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2016, 187~188쪽.
- 10) 이호걸, 「사극과 역사담론」, 『영상예술연구』 3, 영상예술학회, 2003, 61쪽.

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구조와 ‘시각적 표현’이라는 형식에 의해 대중에게 파급력 있는 매체로 작용한다. 또한 ‘극 장르’라는 특성 상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여야 하는데, 이것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특정의 해석으로부터 발현한다. 따라서 동일한 역사적 소재를 다루더라도 그것에 대한 관점, 인식, 해석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sup>11)</sup> 영상 매체를 통한 역사 재현은 서사성을 매개로 대중에게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재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허구성을 동반하게 된다.

영상 매체를 통한 역사 재현은 또한 소비자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기에 상업성을 강하게 띤다. 역사를 자유롭게 재구성하는 것은 작가의 영역을 벗어난 산업적 요구에 의한 것이며, 상품으로서의 역사 영화는 시각적 볼거리와 관습적인 역사 해석을 중심으로 구성된다.<sup>12)</sup> 작가가 실제 인물의 삶을 바탕으로 극중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역사재현은 상업적 판단 하에 재구성되기도 한다. 에저튼(Edgerton, 2000)은 TV가 ‘사용 가능한 과거(useable past)’를 창조하면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포함한 이야기들이 현재를 규명하고 미래를 밝히기 위해 사용된다고 한다.<sup>13)</sup>

한편 미디어에서 다루지는 역사라는 소재는 그것이 민족 집단의 기억이라는 면에서 대중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투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공식적인 역사 기록 역시 지배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며 영상 매체를 통한 역사 재현은 민족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sup>14)</sup> 요시미(Yoshimi, 2003)는 일본의 1960~80년대 TV 역사 드라마가 전후 국가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한국의 TV 역사 드라마

11) 조명상, 『TV 사극에 나타난 역사 재현: <용의 눈물>과 <정도전>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14, 6쪽.

12) 성진수, 『역사의 상업적 재현 방식에 관한 연구: 2007~2008년 개봉한 1930, 40년대 배경 영화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 논문, 2009, 72쪽.

13) G. Edgerton, “Television as Historian: An Introduction”, *Film & History: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Film and Television Studies* 30:1, 2000, pp. 7~12.

14) 이희성, 『한국과 중국의 TV 역사드라마 비교 연구: KBS 『대조영』과 CCTV 『설인귀 전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논문, 2008, 164~165쪽.

마가 반복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다루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의 드라마에서는 해당 시기의 재현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양근애(2015)는 1920~30년대 역사극은 공통적으로 민족 공동체를 강조하고 식민 지배에 대한 비판적 인식, 나아가 그에 대항하는 민중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그 시기 조선의 집단적 인식을 반영한 텍스트라고 해석했다.<sup>15)</sup> 이희성(2008)은 한국과 중국의 역사 드라마 <대조영>과 <설인귀전기>를 중심으로 동일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양국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재현하고 있음을 밝혔다.<sup>16)</sup>

이처럼 영상 역사 재현물은 역사적 사실을 허구적으로 재구성하면서 동시에 해당 시기의 사회적 패러다임과 담론을 표출한다.

## 2.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 재현

### 1) 한국 역사 재현물의 소재와 장르 전개

역사극은 특정 과거 시간과 배경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최소 두 세대 이상의 과거의 일을 다룬다.<sup>17)</sup> 최근의 연구 경향에서는 역사적 시점에 따라 역사극과 시대극을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상고 시대부터 일제 강점기 전까지의 시대를 다룬 것을 역사극, 일제 강점기부터 현대 이전의 시대를 다룬 것을 시대극으로 분류한다.<sup>18)</sup>

1950~60년대 주요 역사극은 설화, 소설, 인물사 중심의 소재를 다룬다. TV 드라마의 경우 <마의 태자>(KBS, 1966), <국토만리>(KBS, 1964)<sup>19)</sup> 등, 영화 역시 <마의 태자>(1956), <무영탑>(1957)<sup>20)</sup> 등 두 매

15) 양근애, 앞의 글, 185~188쪽.

16) 이희성, 앞의 글, 164~165쪽.

17) 주창윤, 「역사드라마의 역사서술방식과 장르형성」, 『한국언론학보』 48(1), 한국언론학회, 2004, 170쪽.

18) 황영미, 「한국 사극영화 장르 연구: 이준익 사극 영화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68, 한국영화학회, 2016, 293~294쪽.

19)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설화를 소재로 한 TV 드라마.(1964, KBS)

20) 불국사 석가탑에 얽힌 석공 아사달과 아사녀의 설화를 소재로 한 영화.(1957)

체 모두 주로 조선 왕조 이전 설화 중심의 소재를 다룬다. 이후 영화는 1960년대 <장희빈>(1961), <연산군>(1962), <세종대왕>(1964), <청일 전쟁과 여걸 민비>(1965), <태조 이성계>(1965), <대원군>(1966) 등 조선 왕조사 중심의 궁중 사극이 주로 제작되었다. TV 드라마 역시 1960년대 후반 <임궏정>(1966, KBS), <수양대군>(1966, KBS), <대원군>(1966, TBC), <세종대왕>(1967, KBS), <이성계>(1967, TBC), 등 조선왕조사 중심의 궁중 사극이 제작되었으며, 두 매체 사이에서 역사적 소재가 공유되고 있음을 보인다.<sup>21)</sup>

1970~80년대 영화에서는 <난중일기>(1977), <세종대왕>(1978)과 같은 국책 사극을 제외하고는 궁중사극이 거의 제작되지 않았는데, 이호걸(2003)은 그 이유를 역사극 장르에 있어 TV 드라마가 영화를 대체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신 과거를 배경으로 한 괴기영화와 무협영화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를 궁중사극에 비해 고통스럽고 어두운 대중의 과거와 계급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하위문화라고 설명한다. 1980년대에는 조선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시대극이 주가 되어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성적 원시성을 강조하였다.<sup>22)</sup> 그리고 이 시대 TV 드라마는 <장희빈>(MBC, 1971), <대원군>(MBC, 1972), <임궏정>(MBC, 1972), <한중록>(KBS, 1972), <세종대왕>(KBS, 1973), <민비>(MBC, 1973), <장희빈>(MBC, 1981), <인현왕후>(MBC, 1988),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MBC) 등 이전과 유사한 역사적 소재가 선택되었다.

1990년대 이후 작가적 상상력, 멜로드라마 및 스펙터클 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형식의 역사 드라마가 등장했다.<sup>23)</sup>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한류 열풍을 타고 역사성보다는 허구성이 강한 퓨전 드라마가 기존에 비해 많이 제작되었다.<sup>24)</sup>

21) 이호걸, 앞의 글, 53~56쪽.

22) 이호걸, 앞의 글, 57~59쪽.

23) 주창윤, 앞의 글, 184~185쪽.

24) 이규정·서의석, 「1990년대 이후 ‘궁중비화’를 소재로 한 사극영화의 서사 발화와 재

[표 1] 시대에 따른 한국 역사 재현물의 소재와 장르

구분	1950~60년대	1970~80년대	1990년대 이후
역사 드라마	소설, 설화 중심 → 인물, 조선왕조, 궁중 사극 중심	궁중 사극 지배층을 벗어난 하위문화	작가적 상상력과 멜로, 스펙터클이 가미된 퓨전 사극
역사 영화			

\* 주창윤(2004), 이호걸(2003), 이규정 외(2015)

## 2) 한국 역사 재현물의 재현 특성

한국 역사 재현물의 흐름은 2000년대 이전과 이후로 양분할 수 있는데, 2000년대 들어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하는 장르적 변형이 두드러진다. 역사 드라마와 영화는 본래 공통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업적이 있는 중심인물을 소재로 한 영웅서사를 기본으로 해 왔으며,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영웅적 인물이 아닌 개인의 서사를 발굴하거나, 영웅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내면을 그려내는 방식으로 영웅 해체를 시도하고 하는 흐름이 드러난다.<sup>25)</sup>

### (1) 한국 TV 역사 드라마의 재현 특성

드라마 <용의 눈물>을 시작으로 한국 TV 역사 드라마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재현에서 벗어나 정치 담론을 형성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이후의 한국 TV 역사 드라마는 조선시대의 정치·경제·사회 현상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현실 정치를 환기시키거나 피지배층 또는 비영웅적 인물의 재조명을 통해 역사성보다는 동시대성을 강조한다.<sup>26)</sup>

현의 변화에 대한 연구, 『미디어와 공연예술연구』 10-3, 청운대학교 방송예술연구소, 2015, 61~62쪽.

25) 김강원, 「TV 역사드라마 <대장금>에서 구현된 영웅서사의 층층적 의미 고찰」, 『어문론집』 55, 중앙어문학회, 2013, 239쪽.

26) 윤석진, 「2000년대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장르 변화 양상 고찰 2」, 『비평문학』 48, 한국비평문학회, 2013, 267~268쪽.

동일한 역사적 소재를 재현한 드라마 <용의 눈물>(1996)과 <정도전>(2014)은 해당 소재를 왕과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권력적 이야기와 백성들의 삶과 애환을 조명하는 정치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로 다르게 재현했다.<sup>27)</sup> 드라마 <대왕 세종>(2008)과 <뿌리 깊은 나무>(2011) 역시 세종이라는 동일한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해당 인물을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방향과 저항 이데올로기를 표출하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재현하였다.<sup>28)</sup>

그러나 대중서사는 보편적으로 지배 이데올로기와 저항 담론이라는 이중담론을 생성한다.<sup>29)</sup> 역사 드라마에서 주로 드러나는 지배 이데올로기는 가부장제, 보수주의, 성공, 민족주의, 가족주의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및 가족 제도의 유지, 주인공의 영웅성 강조, 국난 극복 등이 중심이 된다.<sup>30)</sup> 2000년대 이후 이러한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 담론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일정 부분 지배 이데올로기와 혼재되어 나타난다.<sup>31)</sup>

‘여성 중심 역사 드라마’가 주로 인기를 끌었던 2000년대의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 하의 무한 경쟁 체제와 성공에 대한 강한 열망을 지니고 있다. 이 시기 드라마 <대장금>, <황진이>, <선덕여왕>은 시대가 원하는 강한 여성상을 재현하였다. 여성 개인을 주인공으로 함으로써 기존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적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32)</sup>

27) 조명상, 앞의 글, 64~67쪽.

28) 오덕현, 「역사의 현재적 재현과 시기별 의미구성 차이: TV 역사드라마 <대왕세종>과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34, 한국기호학회, 2013, 110~112쪽.

29) 백경선, 「텔레비전 역사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의 이중 담론」, 『한국극예술연구』 43, 한국극예술학회, 2014, 358쪽.

30) 조윤희, 『전문직 여성의 이데올로기 연구: TV 역사 드라마 <대장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논문, 2003, 33~39쪽.

31) 백경선, 앞의 글, 358~359쪽.

32) 이수미, 『여성중심 역사드라마의 장르적 특성과 젠더 담론: <대장금>, <황진이>, <선덕여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논문, 2010, 74~78쪽.

2000년대 이후 ‘퓨전’과 ‘멜로’가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한류 스타들이 캐스팅되고, 주요 시청자들이 여성 및 해외 수용자로 확대되면서 허구적 성격이 강한 퓨전 멜로 드라마가 등장한 것이다. <성균관 스캔들>, <해를 품은 달>, <구르미 그린 달빛>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 (2) 한국 역사 영화의 재현 특성

한국 역사 영화 역시 역사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 들어 역사성과 더불어 현재성 및 상상력을 첨가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영화 <명량>의 경우, 이전의 이순신 영화와는 대조적으로 영웅 중심의 담론에서 벗어나 백성의 역사를 복원하고, 이순신이라는 개인에 주목한 재현을 시도하였다.<sup>33)</sup> 그러나 역사 영화는 드라마와 달리 ‘멜로’의 성격이 강조되는 재현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대신 <조선 명탐정> 시리즈와 같이 추리 요소를 첨가하거나, <관상>, <왕의 남자>, <광해> 등과 같이 역사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허구의 인물을 첨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한편 역사 영화에 있어 동일 인물의 반복적 재현도 시도되었다. 연산군 관련 영화는 공통적으로 연산군이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는 다르게 인간적 면모와 내면에 관심을 가진다. 영화에서의 연산군은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내면적 상처를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며, 영화는 그의 폭력적 성향과 패륜적 행동에 대해 연민의 시선을 보낸다. 이러한 관점은 기본적으로 현대인의 시각이 내재화된 것으로, 관객들은 모성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과 결핍감을 그려내는 연산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적 문제로 중첩시킨다.<sup>34)</sup> 2000년대 들어 인기 소재로 자리 잡은 정조 역시 다

33) 한영현, 「영웅의 대중적 호출과 역사적 상상력: 영화 <명량>」, 『현대영화연구』 20,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5, 103~105쪽.

34) 이기대, 「연산군 관련 영화에 나타난 인물 형상의 특징과 현대적 의미」, 『인문언어』 13-2, 국제언어인문학회, 2011, 280~284쪽.

양하게 그려졌다. 영화 <영원한 제국>은 개혁가로서 정조 캐릭터의 전형을 창출했으며, 영화 <역린>은 정조 캐릭터 전형을 트렌드화했다.<sup>35)</sup>

### 3. 사도세자에 대한 역사 재현

#### 1) 사도세자에 대한 역사적 논의

사도세자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크게 양분하면 ‘사도세자는 정신적 문제로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이다’라는 시각과 ‘사도세자는 당쟁에 의한 정치적 희생양이다’라는 시각이 공존한다. 당시 사건의 직접적 상황이 기록된 사료인 승정원일기는 영조에 의해 폐기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영조실록이나 혜경궁의 <한중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오랜 시간 ‘임오화변’은 사도세자의 광기, 정신질환과 같은 개인적 문제로 인한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이것은 영조의 성격 이상과 사도세자의 정신질환으로 사건의 이유를 설명하는 혜경궁의 <한중록>에 기반한 해석이다. 그러나 이인화의 역사 소설 <영원한 제국>(1993)이 큰 반향을 얻고, <한중록> 역시 사건 당사자인 혜경궁의 자의적 해석이거나 자기 변명일 수 있음을 지적한 이덕일의 <사도세자의 고백>(2008)이 출간되면서, 정조의 <현릉원지문>과 당대의 정치적 배경에 기반한 새로운 해석이 제기되었다. 김성운(2002)은 임오화변의 원인을 ‘당쟁희생설’과 ‘성격갈등설’로 나누어 논의했다. ‘당쟁희생설’은 남인과 소론이 보수적인 노론 정권을 타파하고자 사도세자를 앞세웠다가 실패한 것을 임오화변의 원인으로 주장하고, 부자 간 성격 갈등이나 사도세자의 질환을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있지 않다. ‘성격갈등설’은 영조와 사도세자의 성격적 부조화로 인한 부자 갈등이 사도세자의 발병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사건에 대한 정치적 맥락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36)</sup>

35) 최민성, 「정조 스토리의 캐릭터 연구: 영화 <영원한 제국>(1995)과 <역린>(2014)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55, 한국언어문화학회, 2014, 253~277쪽.

36) 김성운, 「영조대 중반의 정국과 ‘임오화변’: 임오화변(사도세자 폐사사건)의 발생원인

## 2)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영·정조 시대

사도세자는 대중에게 익숙한 소재로 인식되지만, 2000년대 들어 드라마 <비밀의 문> 전까지는 주요 소재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2000년대 이전 역사 영화로는 <사도세자>(1956), <망부석>(1963)에서 사도세자와 임오화변을 주요 소재로 다룬 바 있다. 드라마에서는 <한중록>(KBS, 1972), <안국동 아씨>(MBC, 1979), <하늘아 하늘아>(KBS, 1988), <조선왕조 오백년-한중록>(MBC, 1988)<대왕의 길> (MBC, 1988) 등에서 사도세자와 혜경궁, 임오화변의 비극을 소재로 다루었다. 이들 재현물들은 대부분 ‘성격갈등설’을 따르며 신파적 성격을 강조한다.

2000년대 이후에는 사도세자가 중심적 소재로 등장하지 않는 대신, 정조가 역사 재현물에서 인기 소재로 선택되었다. <이산>(MBC, 2007)은 정조의 일생을 다루며 정조의 어린 시절 비극으로서 사도세자와 임오화변이 등장한다. 영화 <정조 암살 미스터리 8일> (2007), <영원한 제국> (1955),<sup>37)</sup> <역린> (2014)등에서도 정조를 주인공으로 다룬다. 정조 이야기의 출발은 사도세자의 죽음에서 촉발되는데, 정조를 소재로 한 대부분의 역사 재현물이 노론음모론과 정조독살설과 같은 ‘당론서’의 입장을 따른다.<sup>38)</sup>

2007년 드라마 <한성별곡-정>, 2010년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2011년 드라마 <무사 백동수>는 가상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지만 그 시대적 배경은 영·정조 시대로 하고 있다. <무사 백동수>에서는 사도세자가 주변 인물로 등장하여 북벌을 꿈꾸다가 청나라와 노론의 음모에 의해 희생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또한 2011년 영화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이나 2012년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같은 영화 역

---

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43, 부산경남사학회, 2002, 58~62쪽.

37) 2000년대 이후 작품은 아니지만,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대부분의 작품에서 <영원한 제국>의 관점을 따른다.

38) 최민성, 「정조 스토리텔링의 구조와 의미: 소설 <영원한 제국>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49, 열상고전연구회, 2016, 192쪽.

시 가상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지만 배경은 정조 시대다.

### Ⅲ.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2014년과 2015년에 연달아 ‘임오화변’이라는 같은 역사적 소재를 재현해낸 드라마 <비밀의 문>과 영화 <사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두 작품이 각각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재현했으며 이를 통해 표출되는 의미와 이데올로기적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드라마 <비밀의 문>과 영화 <사도>는 서사구조와 갈등구조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드라마 <비밀의 문>과 영화 <사도>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담론 및 이데올로기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2. 연구 방법

#####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4년 SBS에서 방영된 드라마 <비밀의 문>과 2015년 개봉한 영화 <사도>이다. 두 작품은 같은 역사적 사건인 ‘임오화변’을 소재로 하여 약 1년의 차이를 두고 발표되었다.

<비밀의 문-의궤살인사건>은 2014년 9월 22일부터 2014년 12월 9일까지 총 24부작으로 SBS에서 방영한 역사 드라마로, 영조의 부당한 즉위 과정과 이로 인한 살인 사건, 그리고 그것을 추적해나가는 사도세자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사도>는 2015년 9월 16일 개봉한 사극 영화로, 누적 관객 수 6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다. 영조와 사

도세자의 비극적 갈등에서 발생하는 감성적 대립을 세밀하게 묘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2) 분석 방법

### (1) 서사구조 분석

TV 드라마와 영화의 비교분석을 위해, 텍스트의 서사구조 분석을 통하여 서사의 전개와 인물 재현, 이를 통해 나타내는 텍스트의 전반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전체 서사구조의 흐름을 분절하여 파악하기 위해 <비밀의 문>과 <사도>에 대한 시퀀스 분석을 시도하고, 등장인물의 재현방식을 분석하였다.

기호의 구성 체계를 기표와 기의로 전제한다면, 보다 확장된 개념인 텍스트는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는 방식인 서사구조로 이루어진다. 서사구조의 기본 원리는 주체가 겪는 일련의 시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참된 삶과 행동을 파악할 수 있다.<sup>39)</sup> 프로프(Propp)는 민담, 전설,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일정한 서사 구조를 근간으로 하며, 주요 인물들은 일정한 관계 구조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민담이 일반적으로 “균형 상태→불균형 상태→재균형 상태”를 취한다고 설명하며, 어떤 민담이라도 31개의 기능과 7명의 인물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모태에서 비롯한다는 관점을 제시해 서사물의 체계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였다.<sup>40)</sup> 그레마스(Greimas)는 이 논의를 확장하여 서사물이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지니며, 텍스트의 전체 의미를 체계적으로 생성한다고 주장한다.<sup>41)</sup>

채트먼(Chatman)은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서사물의 구성인자를 이야기와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인 담론으로 구분한다. 이야기는 서사물 속의 ‘내용’이, 담론은 ‘표현’이 되는데, 이야기는 사건적 요소(행위, 돌발사

39) 박인철, 『파리 학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153쪽.

40) 박인철, 앞의 책, 138쪽.

41) 백선기, 『미디어 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14~15쪽.

등)와 사물적 요소(등장인물, 배경 등)로 구성된다. 또한 서사구조의 기호적 특성에 따라 서사물 이면의 심층적 의미를 파악하여 이를 다시 질료와 형식으로 구분한다. ‘표현의 질료’는 물질적 언어적 요소가 되며, ‘내용의 질료’는 인류에게 공통된 사고와 정서의 총체가 된다. 그리고 서사물은 단순히 이러한 요소들의 개별적 총합이 아니라, 연속적이며 상호관련적, 상호 수반적인 하나의 유기체로 형성된다.<sup>42)</sup>

하나의 텍스트가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서사구조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인식될 수 있는데, 이러한 서사구조는 시기적, 시대적,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는다.<sup>43)</sup>

## (2) 계열체 분석

계열체 분석은 공시적 시점에서 상호간 대체 가능성이 있는 요소의 대립 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서사 구조 분석에 의해 기호의 연속적 구조를 분석했다면, 계열체 분석은 이항 대립의 관계구조를 통해 텍스트의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는 프로프(Propp)의 서사 이론이 사건의 연쇄를 파악하는 수평적·통합체적 분석에만 치중한다고 비판하며, 서사에 내재한 깊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직적·계열체적 분석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44)</sup> 기호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상대 기호와의 대립적 관계를 통해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통합체 분석이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표층적인 의미를 밝혀내려 한다면, 계열체 분석은 대립 요소 간의 비교를 통해 심층적인 밝혀내는데 초점을 둔다. 그레마스(Greimas)는 서사구조에 대한 프로프의 논의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기능 모델과 행위주 모델을 제시한다. 그는 프로프가 제시한 기능 모

42) S. Chatman, *Story and Discourse-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1978.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사, 2003, 19~27쪽.

43) 백선기, 『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2』,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7~8쪽.

44) Levi-Strauss(1958), 박인철, 앞의 책, 재인용, 140쪽.

텔 중 서로 계열 관계를 갖는 쌍들과 통합 관계를 갖는 기능들을 추출했다. 예를 들면 ‘금지’와 ‘금지의 위반’은 계열 관계에 있고, 이는 ‘계약의 파기’라는 기능을 이루며, ‘위임’과 ‘위임의 수락’의 계열 관계는 ‘계약의 성립’을 이룬다는 방식이다. 그레마스는 또한 자격 시련, 결정 시련, 영광 시련의 통합체적 개념을 제시하는데, 해당 시련들은 계열 관계의 내용을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형시키는 기능을 갖는다.<sup>45)</sup> 즉, 공시적 관점에서 파악되는 계열 관계가 궁극적으로 통시적 관점의 서사 구조에도 상호 영향을 미치며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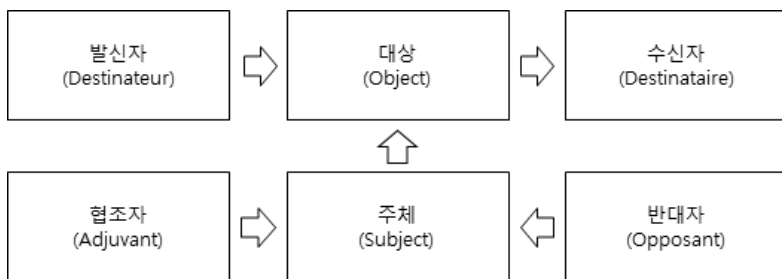
### (3) 행위주 분석

그레마스(Greimas, 1966)는 이야기의 등장인물 또한 이항 대립적 요소를 근거로 파악했다. 하나의 서사에서 주체는 대상을 획득하고자 하며, 이것은 주체에게 어떠한 대상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대상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전달 관계가 성립하며, 주체에 대한 협조자와 반대자의 대립 관계 역시 발생한다.<sup>46)</sup> 이를 행위주 모델이라 한다. 행위주 모델의 세 대립쌍을 통해 세 가지의 축을 도출할 수 있는데, 주체의 대상을 향한 ‘욕망의 축’, 발신자에서 수신자로 이어지는 ‘지식의 축’, 협조자와 반대자가 구성하는 ‘능력의 축’이 바로 그것이다.<sup>47)</sup>

45) A. J. Greimas(1966), 박인철, 앞의 책, 재인용, 149~152쪽.

46) A. J. Greimas(1966), 박인철, 앞의 책, 재인용, 156쪽.

47) A. J. Greimas(1966), 서정철, 『기호에서 텍스트로: 언어학과 문학 기호학의 만남』, 민음사, 1988, 재인용, 292~295쪽.



[그림 1] Greimas의 행위주 모델 (박인철, 2003, p. 156.)

계열체 분석 방법에서 살펴본 Greimas의 기능 모델은 행위주 모델과 상호 관계를 갖는다. 최초 상황(발신자)에서 주체는 자격 시련, 결정 시련, 영광 시련을 거쳐 최후 상황(수신자)에 도달한다. 이 과정에서 협조자, 반대자를 만나게 되며 결과적으로 대상의 획득을 통해 결핍을 해소한다.<sup>48)</sup>

#### (4) 담론 분석

텍스트에 대한 통시적, 공시적 분석 및 기능적 분석 이후, 특정 주제에 대한 담론 분석을 시도하였다. 담론을 통해 발화자의 근원적 사고에서 나타나는 대립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잠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파악하고자 했다.

뱅브니스트(Benveniste)에 따르면 발화는 랑그를 파롤로 전환시키는 행위이다. 랑그를 현실화한 것이 담론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구성이 발화다. 그리고 화자는 발화를 통하여 자신의 주관성을 드러내는데, 서사 구조 자체에서는 주관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인물의 심층적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발화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sup>49)</sup> 채트먼(Chatman) 역시 서사물이 이야기라는 내용과 담론이라는 표현으로 구조화되었다고

48) A. J. Greimas(1966), 박인철, 앞의 책, 재인용, 157쪽.

49) E. Benveniste(1966), 박인철, 앞의 책, 재인용, 414~416쪽.

하며, 담론을 내용에 대한 진술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은 작품 속의 화자에 의해 중재된다. 푸코(Foucault)는 담론의 구조를 ‘근원적 사고(episteme)→서술문(statement)→담론(discourse)’으로 나타내며, 담론에는 구체적 실행 담론과 이러한 실행 담론을 함유하는 포괄적 담론이 있다고 구분했다.<sup>50)</sup>

반 다이크(van Dijk)는 담론이 언어 표현으로서 ‘인지구조’와 ‘사회구조’, ‘이데올로기구조’의 위계 구조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인지구조는 언어와 발화자 사이의 관계, 사회구조는 발화자와 사회의 관계, 그리고 이데올로기구조는 사회적 관계의 집합이 함축된 것이다.<sup>51)</sup> 페어클라우(Fairclough)는 담론과 사회의 관계 구조를 제시하는데, ‘텍스트→담론적 실천→사회적 실천’구조이다. 텍스트는 담론의 서술문 형태이며,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천 과정을 상징적으로 제시한다.<sup>52)</sup> 담론은 화자에 의한 발화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을 포함하며, 담론분석을 통해 이데올로기의 층위에 다다르게 된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서사 구조 분석

드라마 <비밀의 문>과 영화 <사도> 두 작품은 모두 임오화변, 즉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죽은 사건’이라는 공통의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재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드라마 <비밀의 문>은 선형적 서사 구조를 바탕으로 정치와 권력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자간의 갈등이 구시대의 부패와 모순을 대표하

50) M. Foucault(1970), 백선기, 『미디어 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재인용, 23~24쪽.

51) T. van Dijk(1997), 백선기, 앞의 책, 재인용, 24쪽.

52) N. Fairclough(1992), 백선기, 앞의 책, 재인용, 24~25쪽.

는 영조와 노론 세력, 그리고 그것을 타파하고자 하는 사도세자의 개혁 세력 간 충돌에 의한 것으로 재현되었다. 반면 영화 <사도>는 현재와 과거의 병렬적 교차를 통한 비선형적 서사구조를 토대로 부자 간 갈등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자간의 갈등이 왕재로서의 완벽한 자질을 요구하는 영조와 그것을 충족하지 못한 사도세자의 갈등으로 재현되며 부자 갈등의 원인, 전개, 심화를 중심으로 그려진다.

<비밀의 문>에서 사도세자는 구시대의 모순에 저항하는 급진적인 개혁가이자, 애민정신을 가진 군주이며 차분하고 섬세한 성격을 가진 인물로 재현된다. 반면 영화 <사도>에서의 사도세자는 세자로서의 책무보다 인간적 욕망에 충실한 인물이다. 반복되는 아버지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심한 반발심을 표출하는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며, 비행을 일삼다가 광증까지 표출한다. 영조는 <비밀의 문>에서 자신의 권력과 왕좌에 매우 집착하는 인물로 재현된다. 부당한 방법으로 왕위를 찬탈했으며, 출신에 대한 열등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의 폐위와 죽음을 막으려 하는 온정적 아버지로도 재현된다. <사도>에서는 영조가 왕으로서의 완벽한 능력과 예법에 집착하는 인물로 재현된다. 출신에 대한 열등감과 그로 인한 강박관념을 표출하며 아들에게도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한편, 아들의 폐위와 죽음을 직접 결정하는 비정한 아버지로 그려진다.

<비밀의 문>에서는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 등장하지 않고 아내 혜경궁 홍씨가 등장하여 사도세자의 반대 세력에 맞서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돕는 존재로 재현된다. 한편 <사도>에서는 비정한 아버지인 영조에 맞서 영빈, 대비, 중전, 화완옹주 등의 왕실 여성들이 사도세자를 걱정하고 돕는다. 혜경궁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평면적인 인물로 재현된다. <비밀의 문>에서 정조는 사도세자, 영조, 혜경궁 홍씨가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하는 존재로, 사도세자의 개혁의지를 계승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반면 <사도>에서 정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존재로 인

해 아버지의 후계자 지위를 위태롭게 한다. 결국 아버지의 죽음에 간접적인 원인이 되며, 사도세자의 지위를 대체하는 인물이 된다.

<비밀의 문>에서는 부패한 정치의 표상으로서 노론대신들이 사도세자의 개혁에 맞서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주체가 영조가 아닌 노론으로 재현되면서 이것이 부자 갈등보다 정치적 갈등임을 부각시킨다. 반면 <사도>에서 조정대신들은 부자 갈등에서 큰 축을 담당한다기보다는 부자 갈등에 따른 부수적 역할에 그친다.

[표 2] <비밀의 문>과 <사도>의 서사구조 비교

<비밀의 문>	서사구조	<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형적 서사 구조</li> <li>정치 및 권력 갈등에 초점</li> <li>사도세자, 영조, 노론의 갈등</li> <li>저항적 인물의 죽음</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선형적 서사 구조</li> <li>부자 간 갈등에 초점</li> <li>사도세자와 영조의 갈등</li> <li>저항적 인물의 죽음</li> </ul>
<비밀의 문>	등장인물	<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진적이고 정의로운 개혁가</li> <li>애민정신을 가진 군주</li> <li>차분하고 섬세한 성격</li> </ul>	사도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간적 욕망에 충실한 인물</li> <li>아버지에 대한 반항적 태도</li> <li>비행을 일삼다가 광증까지 보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력에 대한 집착과 왕위 찬탈</li> <li>아들의 폐위와 죽음을 막는 온정적 아버지</li> </ul>	영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완벽한 예법과 능력에 집착</li> <li>아들의 폐위와 죽음을 결정하는 비정한 아버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경궁: 반대세력에 맞서 사도세자를 지지하고 보호</li> </ul>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경궁: 소극적이고 평면적 인물</li> <li>왕실 여성들: 영조에 맞서 사도세자를 지지하고 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조: 사도세자의 개혁의지 계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조: 사도세자의 지위를 대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론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주도</li> </ul>	조정대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자 간 갈등에 따른 부수적 역할</li> </ul>

## 2. 계열체 분석

드라마 <비밀의 문>과 영화 <사도>에서 나타나는 갈등 관계를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중요하게 나타나는 이항대립 구조를 도출하였다. 사도세자와 영조의 갈등 관계는 미시적으로 보았을 때는 부자갈등이지만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왕과 차기 왕이라는 정치 세력 갈등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항대립 구조 역시 다르게 나타나는데, 먼저 가정 내 갈등 관계로서 <비밀의 문>은 두 인물의 대립을 ‘가정 내 가치관 대립’으로 재현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이상주의’대 ‘현실주의’가 대립하게 된다. 정치 세력으로서 대립할 때는 ‘사회 정의’대 ‘사회 안정’이 대립하며 ‘정치적 지향점’이 충돌하게 된다. 반면 <사도>는 두 인물의 대립을 ‘가정 내 기대역할 대립’으로 재현하며, ‘사랑과 애정’을 바라는 아들과 ‘공부와 예법’을 강요하는 아버지가 대립한다. 그리고 정치 세력으로서 대립할 때는 ‘가치 지향점’이 충돌하는데, 세자로서의 책임보다 개인적 욕망에 충실한 사도세자는 ‘개인적 가치’를, 유교적 예법과 책임을 강요하는 영조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대립한다.

<비밀의 문>은 정치 세력으로서 사도세자와 노론의 대립 역시 주요하게 재현하지만, <사도>는 정치 세력이 직접적 갈등 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부자갈등에 따른 부수적인 위치로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비밀의 문>에서는 사도세자와 노론, <사도>에서는 사도세자와 정조의 이항 대립 구조가 도출된다. <비밀의 문>은 사도세자와 노론의 대립을 통하여 ‘사회 정의 세력’대 ‘사회 부패 세력’, 또는 ‘기득권 타파 세력’대 ‘기득권 수호 세력’이 대립한다. 한편 <사도>는 사도세자와 정조의 경쟁 관계에서 부자 관계로서는 아버지에 대한 ‘저항’ 대 ‘순응’의 이항 대립을 보이며, 권력관계로서는 기존 권력에 대한 ‘저항’ 대 ‘순응’의 대립이 주를 이룬다.

[표 3] 드라마 <비밀의 문>과 영화 <사도>의 이항 대립 구조 비교

비밀의 문	사도
사도세자 VS 영조	사도세자 VS 영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 내 가치관 대립 (이상주의 VS 현실주의)</li> <li>사회 내 정치적 지향점 대립 (사회 정의 VS 사회 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 내 기대역할 대립 (사랑과 공감 VS 공부와 예법)</li> <li>사회 내 가치 지향점 대립 (개인적 가치 VS 사회적 가치)</li> </ul>
사도세자 VS 노론	사도세자 VS 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 내 개혁과 수구 세력 대립 (사회 정의 VS 사회 부패) (기득권 타파 VS 기득권 수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 내 경쟁 관계 (상위 권력자에 대한 저항 VS 순응)</li> <li>사회 내 경쟁 관계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저항 VS 순응)</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적 관점에서의 대립</li> <li>선악의 이항 대립 구조</li> </ul>	표출되는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의 대립</li> <li>상하의 이항 대립 구조</li> </ul>
--	------------	--

### 3. 행위주 분석

행위주 분석은 사도세자와 영조를 중심으로 각각의 가치 지향성에 집중하였다. 작품 내에서 드러나는 행위주의 관계와, 이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표층과 심층의 이중 구조로 분석하였다.

<비밀의 문>에서는 사도세자가 궁극적으로 ‘사회 정의’와 ‘체제 개혁’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제의 모순’이라는 상황에서 ‘반체제의 패배와 구체제의 유지’라는 결과로 비극적 결말을 맞는다. <사도>에서 사도세자는 ‘인간의 본능적 욕망’을 궁극적 대상으로 하고, ‘개인의 자유 억압과 공적 책임 부과’라는 상황에서 ‘공적 책임을 거부한 개인의 제거’라는 결과를 맞이한다. 한편 영조는 <비밀의 문>에서 ‘사회 안정’과 ‘권력 획득’의 개인적, 사회적 목표를 함께 추구했으며 이는 ‘불안정한 권력구도’의 상황에서 전개되어 ‘안정적 왕권을 위한 아들의 희생’으로 연결된다. <사도>에서의 영조는 ‘능력 우선주의’라는 사회적 가치를 궁극적 대상

으로 했으며 ‘불안정한 권력 구도’로 인한 능력에 대한 집착에서 야기되어, ‘능력에 따른 가족 내 경쟁 관계 및 권력 획득’으로 전개된다.

<비밀의 문>과 <사도>의 행위주 분석을 종합하면, <비밀의 문>은 주로 사회, 기득권, 체제 등의 사회 내 권력 대립을 구조화하고 있다. 반면 <사도>는 욕망, 능력, 경쟁 등의 개인적 범위에 집중하여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사회의 대립을 구조화하고 있다.

[표 4] 드라마 <비밀의 문>과 영화 <사도>의 행위주 분석 비교

인물	구분	<비밀의 문>	<사도>
사도세자의 가치지향성에 관한 행위주	대상	사회 정의, 체제 개혁	인간의 본능적 욕망
	발신	구체제의 모순	개인의 자유 억압과 공적 책임 부과
	수신	반체제적 인물의 패배 구체제의 유지	공적 책임을 거부한 개인의 제거
영조의 가치지향성에 관한 행위주	대상	사회 안정, 권력 획득	능력 우선주의 (사회적 가치)
	발신	불안정한 권력 구도	불안정한 권력 구도 능력에 대한 집착
	수신	안정적 왕권을 위한 아들의 희생	능력에 따른 가족 내 경쟁관계와 권력 획득
표출되는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기득권, 체제 등 사회 내 권력 대립 구조</li> <li>• 사회 정의 구현 실패, 구체제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욕망, 능력, 경쟁 등 개인 및 사회의 대립 구조</li> <li>• 사회에 의한 개인의 욕망 억압</li> </ul>

#### 4. 담론 분석

##### 1) 담화 논제 분류

담론 분석은 먼저 각 작품의 전체 담화에서 드러나는 쟁점을 중심으로 주요 논제를 도출하고, 해당 논제에서 어떠한 대립 담론을 생성하는지 주목했다. <비밀의 문>은 정치, 권력, 가족에 대한 담화가 주요하게 도출

되며, <사도>는 가치관, 권력, 가족에 대한 담화가 주요하게 도출되었다.

[표 5] 드라마 <비밀의 문>과 영화 <사도>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담화 논제

구분	주요 쟁점	담화 논제
<비밀의 문>	정치	언로의 자유 살인 사건 수사 균역법 외교 신분제
	권력	군신 관계 불법적 왕위 찬탈
	가족	가족 관계
<사도>	가치관	공부 능력
	권력	군신 관계 권력에 대한 태도
	가족	모자 관계 부부 관계 가족 내 서열 관계

## 2) 주요 쟁점에 대한 대립 담론 구조


<비밀의 문>은 정치에 관련된 담론이 빈번하게 도출되었으며, 대체로 언로의 자유, 민본주의, 기득권 타파, 자주적 외교와 같은 체제 개혁적인 담론과 언로의 통제, 민중 통제 및 지배, 기득권 수호, 타협적 외교와 같은 체제 수호적인 담론이 대립적으로 나타난다. 권력에 대한 담론에 있어서는 신권 강화와 왕권 강화 담론이 대립적으로 도출되었다.

<사도>는 가족관계에 대한 담론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가족관계에 있어서 가부장제, 가족 내 서열관계와 같은 전통적 가족 담론과 함께 새로운 부부관계, 유교적 가부장제 거부와 같은 전통적 가족 관계를 부정하는 담론이 대립적으로 나타났다. 권력에 대한 담론은 주로 권력에 대한 순응과 저항 담론이 대립적으로 구성되고, 군신관계에 있어서는 전복적

군신 관계와 전통적 군신 관계 담론이 나타났다.

[표 6] 드라마 <비밀의 문>과 영화 <사도>의 대립 담론 구조

<비밀의 문>		<사도>	
정치에 대한 담론		가치관에 대한 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의 자유</li> <li>- 민본주의</li> <li>- 기득권 타파</li> <li>- 자주적 외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의 통제</li> <li>- 민중 통제, 지배</li> <li>- 기득권 수호</li> <li>- 타협적 외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 우선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 지상주의</li> <li>- 능력 지상주의</li> </ul>
권력에 대한 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복적 군신 관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권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복적 군신 관계</li> <li>- 권력에 대한 저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 군신 관계</li> <li>- 권력에 대한 순응</li> </ul>
가족에 대한 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유대 관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교적 부부유별</li> <li>- 유교적 가부장제</li> <li>- 가족 내 서열관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적 부부관계</li> <li>- 유교적 가부장제 거부</li> <li>- 가족 유대 관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 및 권력에 대한 대립 담론</li> <li>• 가족 유대 관계 강조</li> </ul>	<p>표출되는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치관 및 권력에 대한 대립 담론</li> <li>• 전통적 가족 관계에 대한 대립 담론</li> </ul>
--	--------------------	---

## 5. 이데올로기 분석

두 작품에 대한 서사구조, 계열체, 행위주 분석을 통해 상이한 대립구조들을 발견했고, 이들 통해 상호 대립적인 이데올로기를 도출하였다.

첫째, <비밀의 문>은 완벽한 선-악의 이항 대립을 통하여 사도세자의 영웅적 재현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시대의 모순과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는 사회 개혁적 의미를 표출하고 있다. 개혁 세력과 부정부패 세력의 이항대립 구조를 통해 권력을 가진 지도층의 부패를 강조하

고, 이를 혁파하고자 하는 인물의 영웅성을 부각한다. 정치 권력적 관점에서 지배와 피지배, 정의와 부패,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관계가 나타나 옹고 그름을 분명하게 제시하며, 이를 통해 사회 개혁, 전복, 저항 이데올로기를 드러낸다. 반면 <사도>는 상-하의 대립 구도를 제시하며 권력자에 의한 억압, 그리고 이에 대한 순응과 저항적 태도가 양립하지만 선악의 구도는 배제하고 있다. 사도세자는 영웅적 인물이 아니라 인간적 욕망을 추구하고, 개인을 속박하는 사회적 가치 및 권력자의 억압에 대해 저항하는 인물로 재현된다. 사회와 개인의 권력적 관점에서 통제와 순응·저항, 개인 간 서열·경쟁 관계가 재현되며, 사회에 대한 저항과 순응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면서 나타난다.

둘째, <비밀의 문>은 사도세자를 애민정신을 가진 개혁 군주로 재현하고 있다. 사회개혁이 영웅적 인물에 의해 주도되고, 사회 지도층의 입장에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추구하면서 유교적 민본주의 사상을 표출한다. 가족 관계에서도 조건 없는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복종, 부부 간 신뢰 등 정치 갈등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가족 유대 관계를 재현함으로써 전통적 충효 사상 및 가족주의를 내재한다. 반면 <사도>는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학업, 예법, 서열 등의 사회 지배적 가치를 강요하며, 사도세자는 이에 저항적 태도를 취한다. 개인에게 강요되는 주요 이데올로기로 유교적 숭문주의, 가부장주의, 서열주의, 능력 우선주의 등이 나타나며 이에 대한 회의적 관점을 내재한다.

셋째, <비밀의 문>과 <사도> 모두 사도세자의 죽음을 사회에 대한 저항이 실패로 귀결되는 것으로 재현한다. <비밀의 문>의 경우 구시대의 모순, 기득권의 부패에 대한 사도세자의 개혁 시도가 실패하며, <사도>의 경우 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대한 사도세자의 저항 시도가 실패하고, 순응하는 인물인 정조가 선택받는다. 두 작품 모두 사도세자가 패배하는 서사의 흐름을 통해 지배, 통제 이데올로기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7] 드라마 <비밀의 문>과 영화 <사도>의 심층 의미와 이데올로기

<비밀의 문>	구분	<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악의 대립 구도</li> <li>• 부패한 정치 세력에 대한 저항 서사</li> <li>• 지배와 피지배, 정의와 부패,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대치 구도</li> </ul>	심층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의 대립 구도</li> <li>• 개인적 욕망을 억압하는 상위 권력자에 대한 저항 서사</li> <li>• 통제와 순응·저항, 개인 간 서열·경쟁 구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교적 민본주의, 충효사상, 가족주의, 영웅주의 등 전통적 가치에 대한 존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교적 숭문주의, 가부장주의, 서열주의, 능력 우선주의 등 전통적 가치에 대한 회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내 무조건적 유대 관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내 서열·경쟁 관계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혁 세력의 패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항 세력의 패배</li> </ul>



이데올로기	
사회 개혁, 전복, 저항 이데올로기 강조	사회에 대한 저항·순응 이데올로기 공존
지배 이데올로기 내재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회의적 관점 내재
가족 유대 이데올로기 강화	가족 유대 이데올로기 파기
지배, 통제, 계급, 억압 이데올로기의 승리	

##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드라마 <비밀의 문>과 영화 <사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사도세자라는 동일한 역사적 소재를 재현하는 방식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심층적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각 작품이 내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비교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대 들어 사도세자가 드라마와 영화에서 연달아 재현의 소재로 소환된 사실이 갖는 함

의를 숙고하였다.

첫째, <비밀의 문>과 <사도>는 사도세자라는 역사적 소재를 선택하고 그의 죽음을 그리는 과정에서 기존 사회 또는 권력에 의해 패배하는 서사를 구성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역사 재현물과 차별화된 점이다. 기존의 궁중 역사 재현물은 세종, 정조, 여말선초 등의 소재를 통하여 구시대의 모순을 타파하고 개혁에 성공하는 전형적 영웅 서사를 따르거나, 연산군 등의 비극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를 통하여 개인의 내면적 문제를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비밀의 문>과 <사도>는 2000년대 이전 사도세자를 다룬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도세자의 광인 연기, 영조의 이상 성격, 혜경궁의 비극적 운명을 강조한 신파적 성격과도 궤를 달리 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사도세자라는 소재를 통해 개혁에 실패하는 영웅 또는 순응적 인물에 의해 대체되는 반항적 인물을 그리며 거대 권력에 의해 희생되는 개인으로 그려냈다.

둘째, <비밀의 문>과 <사도>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밀의 문>의 경우, 사회의 기득권 세력을 완벽하게 악으로 상징하고, 사도세자는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선으로 그려진다. 사도세자를 제거하는 세력이 영조가 아닌 노론으로 나타나면서 부자갈등보다도 정의와 부패 세력의 대립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개혁, 전복, 저항 이데올로기를 나타낸다. 그러나 <사도>는 사회의 지배 가치를 강요하는 상위 권력자인 영조,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과 순응으로서 사도세자와 정조가 선악의 구도가 아닌 경쟁 구도로 그려진다. 사회에 대한 저항과 순응 이데올로기가 공존하지만, 결국 승리하는 것은 순응 이데올로기이다.

셋째, <비밀의 문>과 <사도>는 사회의 전통적 가치에 대해 서로 상이한 입장을 취한다. <비밀의 문>은 엘리트주의에 입각한 영웅주의와 유교적 민본주의, 충효사상, 가족주의 등을 긍정하며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포한다. 반면 <사도>는 개인을 억압하는 사회적 가치로서 서열주의,

가부장주의를 재현하며, 학업 지상주의나 능력 우선주의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보인다.

이상과 같이, <비밀의 문>과 <사도>에서 사회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나타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주제 의식과 매체의 특성이 혼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비밀의 문>은 영화에 비해 호흡이 긴 TV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 재현방식에 있어 사도세자와 영조의 갈등으로 한정시키기보다 정치 권력적인 관점에서 세력 간 다툼으로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었다. 사회의 모순에 대한 인물의 생각을 대사를 통해 충분히 노출시킬 기회가 많았고, 정치적 신념과 가족 관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의 상황도 구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었다. <사도>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부자 갈등의 원인, 전개, 결과를 담아내야 했기 때문에 플래시백 기법을 통한 과거와 현재의 병렬적 배치를 사용했다. 상대적으로 <비밀의 문>에 비해 대사를 통해 인물의 생각을 드러낼 기회가 적었고, 인물 간 직접적 감정 대립이나 상황을 통한 간접적 대비가 주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의 정치 상황적 맥락이 간과되고 부자 간 성격 및 가치관 갈등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

미디어를 통한 역사 재현은 이처럼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재의 선택과 재현 과정에서 현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며 고유한 관점을 내재한다. 따라서 역사 재현물은 역사 담론의 일부분임은 물론, 이것이 역사라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대 사회에 대한 인식 또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강원, 「TV 역사드라마 <대장금>에서 구현된 영웅서사의 중층적 의미 고찰」, 『어문론집』 55, 중앙어문학회, 2013, 219~243쪽.
- 김성윤, 「영조대 중반의 정국과 ‘임오화변’: 임오화변(사도세자 폐사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43, 부산경남사학회, 2002, 57~94쪽.
- 박인철, 『파리 학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 백경선, 「텔레비전 역사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의 이중 담론」, 『한국극예술연구』 43, 한국극예술학회, 2014, 333~364쪽.
- 백선기, 『미디어 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백선기, 『미디어 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백선기, 『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2』,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 서정철, 『기호에서 텍스트로: 언어학과 문학 기호학의 만남』, 민음사, 1988.
- 성진수, 『역사의 상업적 재현 방식에 관한 연구: 2007~2008년 개봉한 1930, 40년대 배경 영화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 논문, 2009.
- 양근애, 『한국 역사극의 형성과 재현의 문화정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2016.
- 양승국, 「역사극의 가능성과 존재 형식에 대한 소고: 역사를 무대 위에 소환·재현하는 방식을 통하여」, 『한국극예술연구』 25, 한국극예술학회, 2007, 399~433쪽.
- 오덕현, 「역사의 현재적 재현과 시기별 의미구성 차이: TV 역사드라마 <대왕세종>과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34, 한국기호학회, 2013, 81~117쪽.
- 윤석진, 「2000년대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장르 변화 양상 고찰 2」, 『비평문학』 48, 한국비평문학회, 2013, 235~279쪽.
- 이규정·서의석, 「1990년대 이후 ‘궁중비화’를 소재로 한 사극영화의 서사 발화와 재현의 변화에 대한 연구」, 『미디어와 공연예술연구』 10-3, 청운대학교 방송예술연구소, 2015, 57~86쪽.
- 이기대, 「연산군 관련 영화에 나타난 인물 형상의 특징과 현대적 의미」, 『인문언어』 13-2, 국제언어인문학회, 2011, 263~287쪽.
- 이수미, 『여성중심 역사드라마의 장르적 특성과 젠더 담론: <대장금>, <황진이>, <선덕여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논문, 2010.
- 이호걸, 「사극과 역사담론」, 『영상예술연구』 3, 영상예술학회, 2003, 47~62쪽.

- 이희성, 『한국과 중국의 TV 역사드라마 비교 연구: KBS 『대조영』과 CCTV 『설 인귀전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논문, 2008.
- 조명상, 『TV 사극에 나타난 역사 재현: <용의 눈물>과 <정도전>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14.
- 조윤희, 『전문직 여성의 이데올로기 연구: TV 역사 드라마 <대장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논문, 2003.
- 주창윤, 「역사드라마의 역사서술방식과 장르형성」, 『한국언론학보』 48(1), 한국언론학회, 2004, 166~188쪽.
- 최민성, 「정조 스토리의 캐릭터 연구: 영화 <영원한 제국>(1995)과 <역린>(2014)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55, 한국언어문화학회, 2014, 253~277쪽.
- 최민성, 「정조 스토리텔링의 구조와 의미: 소설 <영원한 제국>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49, 열상고전연구회, 2016, 169~194쪽.
- 한영현, 「영웅의 대중적 호출과 역사적 상상력: 영화 <명량>」, 『현대영화연구』 20,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5, 89~110쪽.
- 황영미, 「한국 사극영화 장르 연구: 이준익 사극 영화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68, 한국영화학회, 2016, 287~312쪽.

- Braun, R., "The Holocaust and Problems of Historical Representation", *History and Theory* 33:2, 1994, pp. 172~197.
- Chatman, S., *Story and Discourse-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1978.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사, 2003.
- Edgerton, G., "Television as Historian: An Introduction", *Film & History: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Film and Television Studies* 30:1, 2000, pp. 7~12.
- Hamilton, P., *Historicism*, 1998. 임옥희 역, 『역사주의』, 동문선, 1998.
- Rosenstone, R., "History in Images/History in Words: Reflections on the Possibility of Really Putting History onto Film",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93:5, 1988, pp. 1173~1185.
- White, H., "Historiography and Historiophot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93:5, 1988, pp. 1193~1199.
- White, H., *The Content of the Form: Narrative Discourse and Historical Representati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7.

## Media representations of history, socio-cultural context and ideology:

A semiotic and discourse analysis on TV drama *The Secret Door* and film *The Throne*

Choo, Dakyung · Baek, Seon-G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societal and cultural implication of historical representation in media. There have been frequent attempts to represent historical events in image media such as films and TV dramas, and occasionally same events have been repeatedly represented in different genres or even in same genres. This study focused on the point that historical dramas intended to depict not only historical facts themselves but specific view point from each work.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of a Korean TV drama *The Secret Door* and a film *The Throne*, both of which were released in 2010s, representing a same historical event; known as the most tragic conflict which King Yeongjo killed his own son, Crown Prince Sado, in Joseon Dynasty. It applied semiotic and discourse analyses for each of work to figure out their societal and cultural meaning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could be said that *The Secret Door* represented the resistant meaning against the corrupt hierarchy politically, while *The Throne* showed the resistance against main with power and the dominated social values. Meanwhile, *The Secret Door* represented the inherence of dominant values such as Confucianism, Familism and Heroism, whereas *The Throne* showed the doubt about dominant values such as Confucianism, learning supremacy and Patriarchy which were forced to follow by society and power. That is to say, political and familial problems were separated in *The Secret Door*, so resistant meaning was limited to political points. However, social and familial problems

were not separated in *The Throne*, so the resistance was valid to both of points.

It concluded that each historical representation could reflect current societal and cultural contexts in which they were produced, and it could be represent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each perspective. Perspectives on history could not be fixed but have been changed.

Keywords : historical representation, TV drama, film, prince Sado, ideology

투고일 : 2017. 11. 20. / 심사일 : 2017. 12. 03. / 심사완료일 : 2017. 12. 10.